

강진군, 논콩 재배 기계화 기반 확대 박차

전용 농기계 신규 구입 일손 덜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작업 효율 ↑
인력 부족 도움 노동 강도 완화
“유기적 정책 연계 행정지원매진”

전라남도 강진군이 강진군이 논콩 재배 농가의 작업 효율 향상과 기계화 축진을 위해 전용 농기계 보급과 임대사업 확대에 나섰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콩 전용 파종기 4대(2조 2대, 4조 2대)와 콘 전용 콤바인 2대 등 총 6대의 농기계를 신규 구입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논콩 전용 파종기 9대, 콘 전용 콤바인 4대를 임대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농촌 인력난과 노동 강도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또 발작물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강진군은 올해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콩 파종기를 포함한 8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이들 장비는 오는 6월 중 장기 임대 방식으로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9개소의 장기 임대 사업을 통

해 다수 농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기계화 기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계화 중심 정책은 강진군이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논콩 재배 확대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논콩은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작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358ha였던 강진군의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 6월 기준 777ha로 확대되며 당초 목표였던 700ha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군은 논콩 재배 농가에 ha당 최대 350만원의 전략작물 직불금과 함께 ha당 최대 150만원의 군 자체 지원금을 더해

농가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논콩재해보험료의 95%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자부담을 5%로 낮춰 재배 안정성도 함께 제고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논콩 재배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계화 기반과 행정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전용 농기계 보급과 임대사업, 직불제,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5년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
목포시, 17일부터 88개 업체 대상

전라남도 목포시는 오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광업·제조업체 88개소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본 조사는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개월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부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전화, 인터넷 조사와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인터넷 조사는 7월4일까지만 응할 수 있다.

조사결과와 12월 중 발표하고 내년 2월 확정해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계 통합조사 누리집(www.narastat.kr/ieco), 080콜센터(080-500-2025),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061-270-831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초의선사 제다·다례 체험’
초등학교 현장학습 연계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은 차 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2025년 초의선사탄생지 제다·다례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 진행되며 지난 5월29일 삼향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8개 학교 3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킨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탄생지에서 제다와 다도 예절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초의선사탄생지라는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차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그림자 인형극 특별 공연
목포어울림도서관

전라남도목포어울림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그림자 인형극 ‘아기고래의 첫 여행’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목포 인형극단 ‘푸른고래’가 준비한 작품으로,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그림자극과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관람 후에는 아기고래의 친구들을 만들어 그림자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공연은 5세 이상 어린이(보호자 동반)를 포함해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8일부터 25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http://www.mokpolib.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인형극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무안군 무안읍 복지기동대 직원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읍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이 지난 4일 무안읍 복지기동대와 함께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10일 무안군 무안읍에 따르면 대상 가정은 집 안팎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내부환경도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동대원들은 복지기동대장을 중심으

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도배·장판 교체 등 환경 정비를 하며 아이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김용선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출동! 무안읍 복지기동대’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

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완 무안읍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대상 가정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다가울 장마철을 대비해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불편과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점검해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썸머 올림 페스타 연다

13~14일 군민광장 일원서

전라남도 해남군은 오는 13~14일 해남군민광장에서 ‘2025 여름밤의 문화축제·썸머 올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문화축제는 매년 8월 열리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최 일정을 옮겨 6월에 개최하게 됐다.

2025 해남 여름밤의 축제는 전 공연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행사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날인 13일 오후 6시부터 ‘해남읍

솔인 한마당’을 시작으로 8시에는 4050세대를 주 타깃으로 한 썸머 스위트 공연이 펼쳐진다.

김현정, 스페이스A, 지창민, 피에스타 등 2000년대 유행했던 가수들이 무대를 꾸며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소환한다.

14일 오후 8시부터는 방송인 도경완의 사회로 ‘썸머 스위트 트롯’이 여름밤을 수놓게 된다.

미스김, 추혁진, 정서주 등 낯익은 얼굴부터 나상도, 김용필, 김소연, 염유리, 나영, 김추리 등 국내서 내로라하는 미스&미스터트롯 가수들이 총



출동한다.

14일에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편성해 해남군 곳곳의 관광지 촬영과 지역문화를 알리는 ‘지역순회 로드쇼’도 진행된다.

축제 관련 정보는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 해남군민 전용앱인 소통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군내지구 침수 예방 추진
관로 개량·배수펌프장 신설 등

전라남도 완도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완도읍 군내리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고자 ‘군내지구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침수 예방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하수도 정비 등을 추진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군내지구는 만조 시 배수 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으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총 450억원(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관로 개량(3km), 배수 펌프장 1개소 신설 등을 6월 착공한다.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투입, 가용지구를 대상으로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완도읍은 상수 침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사고 및 군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